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재판을 거래하다니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함에 달려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법적 판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다산은 또 '흠휼신서'(欽劄新書)를 써서 이를 더욱 강조했다. '흠휼'(欽劄)은 '서경'(書經)의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신중히 하셨다"(欽敬欽哉 惟刑之恤哉)에서 따온 말로, 순(舜)임금의 치적을 칭송하는 구절이다. 순임금은 훌륭한 치적을 많이 남겼지만 형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조심히고 신중하였기 때문에 무오류(無譴謬)의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산이 '흠휼신서'를 저술한 의도는,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이 순임금의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었다.

사법적 판결이 이렇듯 중요하기 때문에 법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사법부를 행정부·입법부와 독립시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판사의 취임 선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58년 간첩죄로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사건과 1975년 김

급조지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도예중·여정남 등 8인이 연루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이들은 2011년과 2007년 재심에 의하여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비록 이들의 명에는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그 억울한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국기 뒤흔든 사법 농단

이밖에도 무수한 '사법 살인'이 자행되어 온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신중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에 의한 참사이고, 사법부에 대한 독재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의한 비극이다. 그 시절의 삼권 분립은 허울뿐인 제도였다.

삼권 분립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3심 제도이다. 1심과 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조선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평변'(平反)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평변에 힘쓰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선(善)한 일이요 덕(德)의 바탕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

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이 평변의 취지이기 때문에 다산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지금 평변에 해당하는 최종 판결을 하는 기관인 대법원은 양승태 시절에 '천하에서 가장 선한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수한 사례가 있지만, 2008년에 KTX 해고 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2010년에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2014년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었다.

나는 이들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시비를 따질 능력이 없지만 적어도 다산이 '천하에서 가장 선한 일'이요 덕의 바탕'이라 했던 평변(平反)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엔 행정부와 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만에 하나 '거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기(國基)를 뒤흔든 중대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재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청춘특목



이현수
조선대 법학과 4년·총학생회 사무국장

빛을 잃어 가는 청춘들

포 세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사회 현상에 있어 개인의 책임은 미미하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은 이미 사회가 짜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일 뿐이다. 청년들은 적어도 취업 문제에서는 기성세대의 관 속에서 살아간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학력을 요구하는 있다는 것이다.

그저 농담거리로만 치부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 구조와 청년들의 취업 상황이 심각하다. 취업준비생에게 토익(TOEIC) 등 어학 성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은 이미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혹자는 지금의 청년 취업난을 개인의 노력 여부와 대기업 선호 현상에 있다고 호도하기도 한다.

즉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거나 '중소기업 내지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청년 취업난도 궁극적 개인의 역량 부족 문제로 떠넘기려는 알뜰한 정책론자도 있다.

과연 그렇게 단정 지어도 될까. 물론 우리 사회가 모든 실업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 정책 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면 개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청년 실업난 문제를 구직자 개인의 노력 여부로 치부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사회가 그동안 대책 마련에 너무 소홀해왔다는 것은 백 번 생각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청년 실업 문제를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팔짱만 끼고 방관만 할 것인가.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죄인처럼 숨어 있을 필요 또한 없다.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준비 해놓고 동남풍을 기다려보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겐 기회가 오는 법이다. 삼포 세대, 다포 세대라 불리기에는 내 청춘에 미안하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다시 일어나자. 장애 희망 란에 자신 있게 자신의 꿈을 적을 수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청춘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 결말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잠깐 빛나고 지기에는 우리 청춘들의 에너지는 아직 뜨겁다. 주저앉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일단 곳 곳하게 맞서자.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 글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이자 우리의 청춘에 헌정하는 글이다. 타의로 인해 빛을 잃어가는 나의 청춘, 그리고 당신의 청춘을 응원한다.

기고



최홍길
서울 선정교 교사

'해넘이길'을 빠트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농촌 체험·관광 콘텐츠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68개 마을을 찾았고, 이 가운데 전통과 전통놀이, 관련 음식 등 세부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농촌은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제한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찾고 그 안에서 삶의 여유를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촌 여행지 여섯 곳 중 전남의 신안 둔장마을과 함평 상모마을이 포함돼 있어서 일단 느껴졌다. 상모마을은 고풍스런 한옥이 있는데다가 백중(음력 7월 15일) 때에는 자생차로 밥을 지어 대접하던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둔장마을은 돌담을 쌓아 바닷물고기를 잡는 전통에다 모래땅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대파가 있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는 맞는 말이다.

필자의 고향은 둔장마을이 있는 자은

도(總寧島)이다. 지난 여름 휴가 때에도 고향에 내려가 농사 짓는 부모의 일손을 거들었고 대낮에는 튼튼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고향에는 비교적 큰 해수욕장이 9군데나 있고, 그 중에서 백길·분계·둔장 해수욕장은 매스컴을 탄 적도 있기에 관광객들이 주로 이곳을 향한다. 특히 둔장 해수욕장의 엄청난 규모는 둘째 치더라도 일몰이 주는 장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오랜 시간 잊히지 않을 거라 자부한다.

또한 자은도의 모래밭에서는 최근 대파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어서 일손이 딸릴 때는 육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기도 한다. 마침 둔장 해수욕장 근처에도 대파가 자라고 있었는데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끝에 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힐링의 공간은 '해넘이길'에 있다. 둔장 해수욕장의 끝에서 시작되는 이 길은 임도(林島)였

나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의 평이 좋아서 이제는 자은도 하면 12km에 달하는 해넘이길을 먼저 떠올릴 정도이다.

봄에는 주변의 야생화를 보면서, 여름에는 소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의 마력에 빠져서, 가을에는 단풍의 색깔에 반해서, 겨울에는 땀한 해풍에 맞서서 걸으면 삶의 육구가 무장 무장 솟구친다.

해넘이길을 걸은 뒤, 이곳에서 증도로 가는 여객선을 30분 정도 타고 가서 슬로시티 체험을 하는 맛도 쏙쏙할 것이다. 내년 봄부터는 연륙교가 완공되기에 목포에서 자가용으로도 이 길까지 올 수 있음을 점언한다.

동양 최대의 돌담인 '돌살'도 볼거리이고, 대파를 곁들인 요리 또한 훌륭한 먹거리이지만, 더 중요한 해넘이길을 빠트리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해야 한다. 이곳은 힐링의 공간이고, 사유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社說

진린 선양 사업 중국 관광객 유치 전기로

완도군이 추진하는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陳璘) 장군 선양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유재란 때 함께 왜군을 격파한 두 장군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 모아 그 업적을 기리자는 취지다.

완도군은 옛그제 군청에서 '완도 도당도 관왕묘 및 진린 장군 재평가 학술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조선 시대 각종 기록들을 연구한 결과 진린은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탐욕스럽거나 비겁하지 않았으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장군은 조선과 명나라를 대표하는 수군 명장으로서 백전백승했고, 청렴결백했으며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하는 등 공통점도 많았다.

연구 팀은 또 관왕묘는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파병된 진린 장군이 조명 연합 수군의 전승을 기원하며 군신인 관왕과 해신인 마조 그리고 삼관대제(三官大帝)를 배향하기 위해 건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현재 충무공 이순신을 모시는 충무사(사적 제114호)로 관리되고 있는 관왕묘를 그 인근에 복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완도군이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지난 2014년 서울대 강연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운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선양 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남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중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두 장군의 선양 사업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남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중 관계 개선과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전남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평화당 새 대표, 존립 위한 신의 한 수 찾아라

민주평화당 새 대표로 정동영(4선)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이 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당 의장 이후 12년 만이다. 정 의원은 '올드 보이'라는 일부 비판과 신진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며 정치권의 전면에 다시 나섰다. 평화당 당원들은 일단 '변화'보다는 정 의원의 안정적인 지도력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기록적 참패를 당한 이후 진보적 색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가 대표 선출 이후 내놓은 메시지도 이런 그의 이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정의 당보다 더 정의롭게 가는 게 민주평화당의 목표'라는 취임 일성이 그것이다. 첫 공식 일정인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 장소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좌클릭'은 그간 중도 개혁을 표방해 온 평화당의 기

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들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새로 출범한 '정동영호'는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일단 평화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두로 내세운 '협치' 국면에서 여당과 관계 설정도 당의 존립을 가를 중요한 숙제로 보인다. 여당의 '2중대'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여당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것 역시 정 대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평화당은 호남 지역에 현역 의원과 당원이 편중된 지역당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명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외연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가 당내 화합을 이뤘다고 일장 기간 내에 당의 체제를 정비하여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無等鼓

국가 간 정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인계'(美人計)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성 로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러시아 미녀 스파이' 사건으로 발각 뒤집혔다.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인 마리아 부티나(29)가 워싱턴DC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와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고, 크렘린의 지시로 미국의 정치 조직에 침투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또 최근엔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되

주에서 무회로 활동하며 독일 스파이 역할을 했다. 또 이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로가 프랑스 스파이로 활동하기도 했다. 영화 '색,계'(色,戒)의 모델이 된 옛 중화민국의 미녀 스파이 정명루 이야기도 미인계의 대표적 사례다. 정명루는 일본이 1930년대 상하이를 점령했을 당시 사교계의 꽃이었다. 일본 외교관들을 상대로 고급 정보를 수집하던 그녀는 친일 괴뢰 정부 정보기관의 책임자 당모춘에게 접근해 그를 암살하려다 적발돼 처형됐다.

미인계

는 직원이 10년 넘게 근무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인계는 손자병법 36계 중 31계로 옛날부터 중요한 책략이었다. 고대에는 강한 적에게 미인을 보내 적 지도부의 전의를 약화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 미인계는 주로 정보 전쟁에 이용된다. 미모의 여성을 스파이로 활용,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가장 유명한 여성 스파이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마티타데. 네덜란드 출신인 그녀의 본명은 마그레타G.젤러. 그녀는 말레이어로 '여명의 눈동자'라는 뜻인 마티타데로 이름을 바꾸고 파리의 댄스홀 뮐랭루

아돌프 히틀러를 유혹해 정보를 빼내 온가 체고파, 영국 자비당 마이크 행콕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영국 해군 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러시아 정보기관에 넘긴 에카테리나 자블로비테르, 온라인 부동산 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신분을 위장한 채 때에는 각종 파티와 레스토랑·클럽을 드나들며 각종 정보를 수집했던 뉴욕 사교계의 거물 예나 체프먼 등은 러시아(구 소련)의 유명한 여성 스파이로 알려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힘은 대단한 듯한테 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날자 벗어나 필카. /박지석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정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